

강이야기

2

River & Culture



이 학 영 | 우리협회 이사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회장
(koreafish@hotmail.com)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모래무지 ; 모래를 무지 좋아하는 친구

학명 : *Pseudogobio esocinus*

지역 방언 : 새치미, 모래모찌, 악어대가리, 모자, 매자, 두루치 등

분류 : 잉어목 모래무지아과

자생 수역 : 서·남해로 흐르는 하천 및 중국과 일본에도 서식

주 서식장소 : 물이 맑은 하천의 중·상류 수역

번식기 : 5-6월

크기 : 20센티 내외

지방에서 자라난 독자들은 유년 시절 친구들과 마을 앞 개천에서 모래무지를 잡아와 집에서 길러본 추억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에 심취하여 여름에는 아예 하천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당시 유일한 운반 도구인 고무신에 물고기를 담아 논둑길과 신작로를 지나 올 때 웬 자갈이 그리도 많은지, 발바닥이 아픈거리는 것도 잊고 애지중지 가져와 금붕어용 둥근 유리 어항에 넣어 기르고 이것도 없던 친구들은 아무 항아리나 마구 넣어 어머니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었었다. 학교 간 사이 친척 아저씨가 놀러와 매운탕 술안주감으로 얼씨구나 잡아먹어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던 그 옛날 코를리개 벗도 생각이 난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련한 동심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모래무지는 잉어과 모래무지아과의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로

전국의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 곳곳에 널리 자생한다. 몸은 길고 둥글며 머리는 악어처럼 생겼다. 입수염도 한 쌍 달려 있다. 번식력이 좋고 물이 맑고 모래가 깔린 자연형 하천에는 매우 흔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예로부터 매우 친숙한 물고기다.

고서(古書)에도 자주 등장하여 전어지(佃魚志), 물명고(物名考) 등에 취사어(吹沙魚), 사매어(沙埋魚) 및 여러 가지 한자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이는 모래무지가 입으로 모래를 내뿜고 모래 속에 몸을 잘 숨기는 특성을 적절히 표현해 주는 이름들이다. 순 우리말의 이름도 <모래물이>에서 유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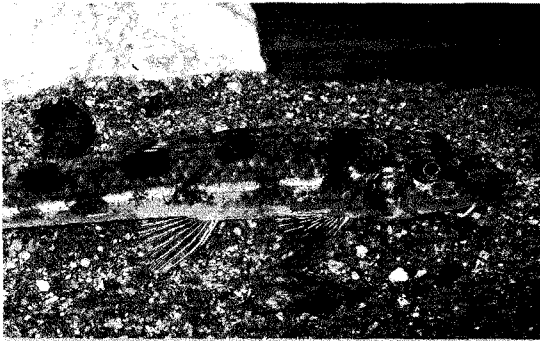
가정의 어항에서도 잘 적응하여 살 수 있으므로 자녀들과 같이 이 물고기를 길러 보자. 모래와 같은 보호색을 띠고 모래 속에 깊이 파묻혀 눈만 내놓고 있을 때 가족들과 숨은 모래무지 빨리 찾기 시험을 할 수 있다.

먹이는 잡식성으로 자연에서는 작은 수서곤충을 주식으로 하나 수조에서는 일반 관상어 먹이도 잘 먹는다. 바닥에 깔린 모래 속의 유기물을 입으로 걸러 먹으므로 잘 가라앉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말라 바짝 여위게 된다. 이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물고기들로는 벼돌매치, 왜매치, 돌마자, 모래주사, 경모치, 배가사리, 두우쟁이 등이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다. 이들은 외견(外見)상 모래무지와 비슷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않으면 혼동하기 쉽다.

근래에는 하천공사로 인해 모래무지의 자연 서식처가 매우 협소해졌다. 잔모래가 깔리지 않은 곳에서는 살지 못하므로 도시하천 등의 하천생태복원시 모래톱 구간을 넓게 조성

해주어아아들이 서식할 수 있게 된다. 모래무지는 모래 속의 유기물을 입으로 쟁기질을 하며 걸러먹기에 하천수질을 맑게 하는 미화원 역할을 하는 물고기이며 2급수 이상에 사는 풍치어로 환경지표종이 되고 있다. ●



〈그림 1〉 모래무지

저서성 어종의 대표인 모래무지가 모래에서 쉬고 있다. 입이 잘 발달되어 있고 몸은 전체적으로 모래색과 같이 보호색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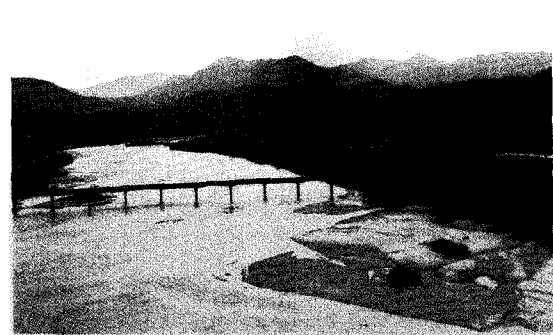
〈그림 2〉 모래물어

모래무지는 위험을 느끼면 순식간에 모래톱 사이로 몸을 숨긴다. 눈만 찌끔 내밀고 묻혀있는 녀석을 천적들이 찾기란 무지 어려운 일이다.



〈그림 3〉 강의 중인 필자

생태교육현장에서의 필자. 모래무지를 채집하여 설명하는 표정이 무지 즐거워 보인다.



〈그림 4〉 모래무지 서식처 경북 영양

모래시장이 잘 발달되어 모래무지가 무지 살기 좋은 환경인 낙동강의 상류.